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정은* · 조미형*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085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녀 공통적으로 문제행동에는 가족분위기, 친구문제행동, 또래애착이, 학교생활흥미에는 친구문제행동,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학업성적에는 부모애착, 부모의 진로관심, 교사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이러한 영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학생들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수립시 성별 및 학교생활부적응의 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학교적응,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I. 서 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장이며,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4). 더욱이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이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과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은 대표적으로 학교생활에서 저조한 학업성적과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고, 중국에는 학교중퇴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할 경우 향후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사회적,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에 위협이 된다(Richman, Bowen, & Woolley, 2004). 또한 외국의 연구들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개인적으로 사망률, 자살사건, 범죄행동, 약물사용, 정신병원 입원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Kaplan & Peck, 1997; Kasen, Cohen & Brook, 1998; Mahoney, 2000; Obot, Hubbard, & Anthony, 1999; Rumberger, 2004 재인용), 국민 소득 저하, 실업률 증가, 세수감소,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범죄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nahan, 1994; Decker, Rice, Moore, & Rollefson, 1997; Manlove, 1998;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1; Richman et al., 2004 재인용).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학교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는 진로(61%)와 학업 및 학교 부적응(59.2%)이었다(매일경제, 2007.9.11일자).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04년 학업을 중단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인 52%가 학교생활 부적응, 가출과 비행, 인터넷 중독 등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05.9.13일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최근 각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적응 도는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한 학교적응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대안학교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부적응의 양상을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

적으로 분석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개념 및 관련 변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특히,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관련 요인, 가족요인, 친구 및 학교관련 요인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문은식, 2006; 류경희, 2003; 최지은·신용주, 2003).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하거나, 학교적응의 세부적 측면을 고려한 각 관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영향 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대인관계요인으로 묶어서 분석함으로써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학교적응을 학업성적과 같은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고 있거나, 각 영역별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한 점수를 합하여 적용점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몇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으로 보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이순형·이강이·성미영, 2001; 이영미·민하영, 2004; Berndt & Hawkins, 1985; Berndt & Keefe, 1995; Ladd, 1990; 유안진 외, 2004 재인용), 각 차원을 개별적으로만 다룰 뿐 통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남녀 청소년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정서적, 행동적 결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게 되지만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남녀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 친구, 교사, 학교,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의 각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학교적응을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학교생활에의 흥미, 학업성적 3가지 하위차원으로 정의하고(Woolley & Grogan-Kaylor, 2006), 각각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한 현상의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부적응에서 적응의 연속선상에 있는 일련의 과정 개념으로서 문제행동-학교생활흥미-학업성적을 설정하고, 각 하위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 정의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학교적응의 개념이 연구자마다 다양하고 정의와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Missall, 2002; 이규미, 2005 재인용). 또한 그동안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생의 학업수행, 학업성취 등과 같은 인지적 기술에 초점을 두었으나 학교적응은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협동적 참여, 자발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Birch & Ladd, 1997). Ladd(1990)는 학교적응을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활동 참여, 학업관련 실천 결과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송운용·곽수관(2006)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도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성취 태도, 학교 규범준수 태도 및 실태, 학업성적,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였다. 한편 정규석(2004)은 학교적응을 학교생활 만족도 등과 같은 전반적 적응도와 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적 적응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문은식(2006)은 선행연구(Baker & Siryk, 1984; Birch & Ladd, 1997)에 기초하여 학교적응의 하위차원으로 수업참여도·학습노력·학습행동통제·학습지속성과 같은 학업 적응, 사교적 행동·교실 규칙을 지키는 행동·책임을 지는 행동과 같은 사회적 적응, 학교선호와 학교생활 만족과 같은 정의적 적응을 살펴보았다. 유안진 외(2004)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교사 적응, 교우 적응, 규칙 적응의 3개 하위 영역으로 정의하였고, 이규미(2005)는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그리고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하위차원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에 연구된 학교적응은 ‘학교’적응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을 중점으로 그 영역별 적응을 하위개념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 양상은 하위 영역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영역에의 적응이 다른 영역에의 적응을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각 하위영역별 적응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유안진 외,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논의의 중점으로 하여, 학교적응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적응의 상태에 따라 부적응에서 적응까지의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보고 문제행동-학교생활흥미-학업성적으로 하위차원을 구성하고자 한다.

민영순(1979)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적응, 그렇지 못한 경우를 부적응이라 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적응과 부적응이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개인의 적응은 적응과 부적응의 양극단 연속선상의 어느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정원식, 1989). 학교적응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형태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그리고 학업성적에 이르는 발달적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Maslow의 욕구단계와 비슷하게, 학교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학교적응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Woolley & Grogan-Kaylor, 2006).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주변 환경은 학교생활에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즐겁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학업성취로 이끈다.

2.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로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라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Richman et al., 2004).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 안전, 학교규모와 같은 학교의 환경적 특성들은 학교에서 청소년의 행동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iberg, 1999). 범죄, 폭력, 또래 문화, 빈곤, 지역사회 만족도와 같은 지역사회 요인들 또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owen, Bowen, & Ware, 2002). 여기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밝혀진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족요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은 크게 가족 문화 및 분위기, 부모-자녀 관계, 가족 배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부간 불화가 잦고 가정 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류경희,

2003). 또한 자녀 교육에 지지적인 가족 문화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정도에 따라 간접적으로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wen, Richman, Brewster, & Bowen, 1998).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관계가 긍정적일수록(최지은·신용주, 2003),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고 성숙요구적이라고 지각할수록(유안진 외, 2004),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족 배경 요인들 또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Nash,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인 경우(이강선, 1999) 성적이나 수업태도, 학교생활에서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요인

학교적응은 학교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분위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지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심리·사회적인 면과 학업의 성취도가 높으며(McGuire & Weisz, 1982; 류경희, 2003 재인용),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즐겁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최지은·신용주, 2003; 박현선, 1999). 또한 교사와의 관계, 특히 신뢰관계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Hoy & Sweetland, 2001),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교사가 지지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흥미도 있고 성적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석, 2004; 최지은·신용주, 2003; Rosenfeld, Richman, & Bowen, 2000). 교사의 지지와 지도는 자퇴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oninger & Lee, 2001).

한편 Ryan, Stiller와 Lynch(1994) 연구에서는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 통제 등을 보다 더 잘 하고 있는 반면, 친구관계는 이러한 결과들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청소년은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지만, 학교 친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외, 2004).

친구와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외에도 학교안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도 학업성취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wen et al., 1998).

3) 지역사회요인

Bowen 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위험이 학생들의 학교 출석, 문제회피, 성적과 관련이 있고, Bowen 외(2002)의 후속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사회적 해체가 교육관련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tanian과 Gleason(1999)에 따르면 평균가구소득이 높고 양부모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 높았다.

지역사회의 특성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느낌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다. Nash(2002)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범죄, 부정적인 또래 문화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범죄와 폭력은 학교에서의 폭력적인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en & Ban Dorn, 2002).

3. 학교적응의 남녀집단 차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쳐 성차가 나타난다고 볼 때(Eagly, 1987),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초기 연구인 배기명(198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국내 대부분의 연구(구자은, 2000; 박소혜, 1995; 정유진, 1999, 최지은·신용주, 2003)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안진 외(2004)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교사적응, 교우적응, 규칙적응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남녀 청소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진 외(2004)의 지적대로 이러한 연구결과의 불일치가 연구대상의 차이인지, 이들 연구가 학교적응을 합하여 하나의 점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 자체의 남녀 차이 외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읽기 점수는 더 낮게 받고, 나쁜 행동은 더 자주, 더 심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년

이 올라가면서 이후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Williams, Davis, Cribbs, Saunders, & Williams, 2002). 또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더 많은 지역사회 요인들이 고등학교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외출 제한 등 다소 위험한 사회 상황에 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Ensminger, Lamkin, & Jacobson, 1996).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3년부터 전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 및 부모 3,40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자료 중에서 3차년도(2005년)에 수행한 중2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조사대상은 총 3,125명으로 남학생이 1,572명, 여학생이 1,553명이고,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085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청소년패널 조사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문자료에 기초하여 각 변수들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을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고 부적응에서 적응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학교적응 중 문제행동은 학교 내로 범위를 한정시켜 비행(범죄)으로 인한 학교의 경고나 징계 경험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생활흥미는 교칙이나 규정에 대한 적응, 공부에 대한 흥미,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진학이나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데 적합한지 등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

다. 학업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영역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평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매우 못하는 수준(1점)’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가족요인은 가족분위기,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모의 자녀진로에 대한 관심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요인 중 가족분위기는 가족 내에서의 부모님들의 욕설·폭력 목적과 부모님으로부터의 욕설·폭력 경험 등에 대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감독은 외출 시 부모님이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정도의 4문항으로, 부모애착은 부모의 애정과 관심, 이해, 대화와 의사소통 등에 대한 6문항으로, 부모진로관심은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하는 정도 1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요인은 친구문제행동, 또래애착, 교사에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친구문제행동은 지난 1년간 친한 친구들 중 각 문제행동을 한 친구의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사용하였고, 문제 행동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놀리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행위로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로 한정하였다. 즉, 음주·흡연·성폭력 등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래애착은 학교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관한 3문항, 교사에착은 교사의 애정과 관심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요인은 지역사회감독과 지역사회애착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지역사회감독은 담배나 술, 폭행과 관련한 문제행동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통제 정도, 지역사회애착은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 및 신뢰를 의미하며 각각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의 지역적 특성, 가족구조,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통제하였다. 학교의 지역적 특성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가족구조는 한부모인 경우를 1,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만원 단위로 나타낸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들의 신뢰도는 학교생활흥미의 Cronbach's α 값 .720, 학업성적 .694, 가족분위기 .806, 부모감독 .884, 부모애착 .881, 친구문제행동 .640, 또

래애착 .588, 교사애착 .734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적응의 세 가지 양상인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을 종속변수로 각각 투입한 세 가지 모델을 설정하고 SPSS 13.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학교의 지역적 특성, 가구의 일반적 특성 등 일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특성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3,085명의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이 1,551명(50.3%), 여학생 1,534명(49.7%)이며, 93.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양친부모가 다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구 월평균소득은 평균 357.11만원(표준편차 180.08만원)이고, 학교소재지는 중소도시가 45.7%, 대도시가 29.2%, 서울특별시가 16.9%, 농어촌이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 분	남자(n=1,551)		여자(n=1,534)		합 계	
		빈도	%	빈도	%	빈도	%
가족 구조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1,429	93.5	1,409	93.0	2,838	93.3
	친아버지만	21	1.4	23	1.5	44	1.4
	친어머니만	53	3.5	58	3.8	111	3.6
	친아버지와 양어머니	13	0.9	8	0.5	21	0.7
	친어머니와 양아버지	9	0.6	12	0.8	21	0.7
	두 분 모두 사망	3	0.2	5	0.3	8	0.3
가구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01	6.6	126	8.3	227	7.5
	110-200만원	350	22.9	385	25.4	735	24.2
	210-300만원	499	32.7	455	30.0	954	31.4
	310-400만원	277	18.1	257	17.0	534	17.5
	410-500만원	165	10.8	167	11.0	332	10.9
	510만원 이상	136	8.9	125	8.3	261	8.6
학교 소재 지	서울특별시	264	17.0	258	16.8	522	16.9
	대도시	432	27.9	469	30.6	901	29.2
	중소도시	735	47.4	674	43.9	1,409	45.7
	농어촌	120	7.7	133	8.7	253	8.2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비교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가족요인의 경우 가족분위기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 집단의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감독은 여학생 집단이 평균 3.52점으로 남학생 집단 3.24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도 남학생 집단이 평균 3.34점인 것에 비해 여학생 집단이 3.54점으로 높았고, 진로에 대한 관심도 평균 3.58점인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이 3.69점으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에 있어서는 친구들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학교안전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비교

항 목	남자(n=1,551)		여자(n=1,534)		t-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요인	가족분위기	3.97	0.92	3.99	0.91	-0.662	
	부모감독	3.24	0.83	3.52	0.81	-9.726	***
	부모애착	3.34	0.70	3.54	0.73	-7.778	***
	부모진로관심	3.58	0.74	3.69	0.62	-4.369	***
학교요인	친구문제행동	1.06	4.05	0.52	1.88	4.821	***
	또래애착	3.72	0.79	3.67	0.76	1.523	
	교사애착	2.65	0.81	2.61	0.82	1.269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감독	3.20	1.02	3.37	0.96	-4.726	***
	지역사회애착	2.57	0.93	2.61	0.90	-1.497	
학교적응	문제행동	1.42	0.86	1.34	0.75	2.777	**
	학교생활흥미	3.48	0.96	3.41	0.93	1.964	
	학업성적	3.08	0.67	3.00	0.64	3.743	***

*** $p < .001$, ** $p < .01$

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의 수가 남학생 집단은 평균 1.06명, 여학생 집단은 0.52명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가 많은 것으로 보고한 반면, 또래애착이나 교사애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사회요인으로 지역사회감독이 남학생 집단은 평균 3.20점, 여학생 집단은 3.37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적응의 경우 문제행동은 남학생 집단이 평균 1.42점으로 여학생 집단 1.34점에 비해 높았고, 성적은 평균 3.08점인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이 3.00점으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학교생활흥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남녀 집단차이가 없었다.

3.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인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교소재지, 가구월평균소득, 가구형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가족요

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남녀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제시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제2종 오류를 줄이기 위해 유의수준을 .01 이하로 떨어뜨려 살펴보았다(성숙진 · 유태균 · 이선우 역, 2001).

남학생 집단의 경우 다음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은 설명력이 10.6%($p < .001$), 학교생활흥미 모델은 18.9%($p < .001$), 학업성적 모델은 9.3%($p < .001$)로 유의미하였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문제행동 모델은 설명력이 16.2%($p < .001$), 학교생활흥미 모델은 22.7%($p < .001$), 학업성적 모델은 10.0%($p < .001$)로 유의미하였다.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의 모델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 남학생 집단

우선, 남학생 집단에서 학교생활에서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요인에서는 가족분위기가, 학교요인에서는 친구문제행동과 또래애착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가족분위기가 좋지 않을수록,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또래들과의 애착관계가 적을수록 학교에서 문제행동으로 인한 징계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문제행동 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이 가장 높아 남학생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친구문제행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통제변수나 가족요인의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모의 진로관심, 학교요인의 교사애착, 지역사회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생활흥미에는 가족요인 중 부모애착이, 학교요인 중 친구문제행동,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부모와의 애정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가 적을수록, 또래 및 교사와의 애정과 신뢰관계를 형성할수록 학교생활에 흥미와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볼 때 또래애착, 교사애착, 부모애착, 친구문제행동 순으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성적에는 통제변수 중 가구월평균소득이, 가족요인에서는 부모애착과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학교요인에서는 친구문제행동과 교사에착이, 지역사회요인에서는 지역사회감독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가구월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애정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수가 적을수록, 교사와의 애정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지역사회에서 동네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감독이 잘 될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부모진로관심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다음으로 교사에착, 지역사회감독, 친구문제행동, 부모애착, 가구월평균소득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다.

<표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학생 집단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	
		β	β	β	
통제	대도시	-.025	.043	0.035	
	중소도시	.018	-.031	0.031	
	농어촌	-.019	-.022	-0.011	
	가구월평균소득	-.011	-.019	0.075	**
	가구형태	.040	-.051	-0.042	
가족요인	가족분위기	-.131 ***	.047	0.009	
	부모감독	-.020	-.007	0.067	
	부모애착	-.064	.109 ***	0.082	**
	부모진로관심	.031	.010	0.100	***
학교요인	친구문제행동	.226 ***	-.083 **	-0.083	**
	또래애착	-.094 ***	.330 ***	0.033	
	교사에착	.001	.117 ***	0.099	***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감독	-.035	-.013	0.086	**
	지역사회애착	.028	.061	-0.054	
R^2 (Adjusted R^2)		.106(.098)	.189(.182)	.093(.084)	
F (Sig.)		12.427(.000)	24.361(.000)	10.715(.000)	

*** $p < .001$, ** $p < .01$

2) 여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의 경우 학교생활 중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요인의 가족분위기, 학교요인 중 친구문제행동과 또래애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내에서 욕설이나 폭력 노출과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수가 많을수록,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수록 학교 내에서 문제행동으로 인한 징계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친구문제행동과 가족분위기로 나타났다.

학교생활흥미에는 통제변수 중 대도시, 가족요인 중 가족분위기와 부모감독, 학교요인 중 친구문제행동,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학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 비해 대도시인 경우가 학교생활흥미가 낮았고, 욕설이나 가정폭력이 없는 가족분위기일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또래 및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학교생활에 있어서 흥미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학생 집단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성적
		β	β	β
통제	대도시	.008	-.100 **	-.034
	중소도시	.020	-.085	.014
	농어촌	-.002	-.073	-.047
	가구월평균소득	-.019	.009	.072 **
	가구형태	.008	.009	-.035
가족요인	가족분위기	-.137 ***	.087 ***	-.029
	부모감독	-.066 *	.075 **	.042
	부모애착	-.043	.053	.127 ***
	부모진로관심	.048	.000	.081 **
학교요인	친구문제행동	.317 ***	-.105 ***	-.026
	또래애착	-.079 **	.327 ***	.049
	교사애착	-.031	.168 ***	.146 ***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감독	-.011	-.001	-.001
	지역사회애착	.019	.035	-.025
R^2 (Adjusted R^2)		.162(.154)	.227(.220)	.100(.092)
F (Sig.)		20.204(.000)	30.616(.000)	11.607(.000)

*** p < .001, ** p < .01

특히 영향력의 크기를 볼 때 또래애착, 교사애착, 친구문제행동, 가족분위기, 부모감독, 대도시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에는 통제변수 중 가구월평균소득과 가족요인 중 부모애착과 부모진로관심, 학교요인 중 교사애착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가구월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애정이 높고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변수들 중에서 교사애착과 부모애착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 집단의 경우 지역사회요인은 학교적응의 어떤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을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에서 적응까지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고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그리고 학업성적으로 구분된 각각의 학교적응 양상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성별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표 5> 연구결과의 종합

		학교적응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	
		남	여	남	여	남	여
가족요인	가족분위기	***	***		***		
	부모감독				**		
	부모애착			***		**	***
	부모진로관심					***	**
학교요인	친구문제행동	***	***	**	***	**	
	또래애착	***	**	***	***		
	교사애착			***	***	***	***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감독					**	
	지역사회애착						

*** $p < .001$, ** $p < .01$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종합한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을 문제행동-학교생활흥미-학업성적이라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각 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적응의 과정인 문제행동-학교생활흥미-학업성적 순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하겠다.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가족분위기, 즉 가족 내에서 욕설·폭력의 목격 및 경험이 클수록,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둔 학생일수록, 또래와의 친밀감이 낮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부부간 불화가 잦고 가정 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가족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선애, 1995; 김준호·김순형, 1995; 정유미·김득성, 1998, Shagel & Barber, 1993; 류경희, 2003 재인용). 또한 유안진 외(2004)의 연구에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교 친구들이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흥미에 있어서는 남녀 공통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가 적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원활할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가 높을수록 더욱 학교생활에 흥미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지지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는다고 보고된 여러 연구들(정규석, 2004; 최지은·신용주, 2003; Hoy & Sweetland, 2001; ; Rosenfeld et al.,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여학생은 가족 내에서 욕설·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는 가족분위기일수록, 부모가 자녀가 외출할 때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언제 집에 들어올지 등 감독을 잘 할수록 학교생활흥미를 더 많이 느끼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정 및 신뢰 관계가 돈독할수록 더 학교생활에 흥미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평소 부모와 애정과 신뢰가 높고 대화를 많이 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교사와의 친밀감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애착관계는 학업성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학업적 대처 등을 더 잘하는 반면, 친구관계는 이러한 결

과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Ryan 외(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정규석 (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 교사관계가 성적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지지적인 교사가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Roselfeld et al., 2000; Murdock, 1999; Wentzel, 1999).

반면, 여학생과는 달리 남학생의 경우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학업 성적이 높고, 지역사회에서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 하는 분위기일수록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외부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극이 되는 요인이나 보호 요인이 있을 때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Ensminger 외(1996)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외출 제한, 보호 등으로 인해 다소 위험한 사회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가족 및 학교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제행동-학교생활흥미-학업성적으로 이어지는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수들이 일련의 흐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요인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가족분위기가 학교 내 규칙위반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고,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이 학교생활 흥미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애착과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단계적 과정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요인에 있어서는 친구문제행동과 또래애착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문제행동과 또래애착, 교사에착이 학교생활흥미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에착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oolley와 Grogan-Kaylor(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수들이 학교 행동에서 학업성취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취이라는 하위차원으로 구분 하고, 각 하위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 및 학교, 지역사회요인이 학교적응의 세 가지 하위차원에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가족요인에 있어서 남녀 모두 가족 내에서 욕설이나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교생활흥미에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학생은 가족분위기, 부모의 외출에 대한 감독에 영향을 받고, 남학생은 부모와의 애착관

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은 남녀 모두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요인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는 남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교생활 흥미와 학업성적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친구수는 남학생의 학업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학생의 학업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학교생활 부적응이라 하나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또한 남녀 학생들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수립 시 학생의 성별 및 학교부적응의 양상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함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상호 역전될 수 있는 한계가 내재해 있다. 예를 들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교사의 애정과 관심을 얻게 되고,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교사의 애정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이는 교사에착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가 유발될 수도 있지만,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을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가정하였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학생이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업성적도 부진하지만,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게 되면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나아가 학업성적도 우수해 진다는 단계적 설정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녀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지만,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성별에 따라 가족 및 학교, 지역사회 요인이 학교적응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민영순(1979). *교육심리학*.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성숙진·유태균·이선우 역(2001). *사회복지조사방법론*. Rubin, A. & Babbie, E., 서울: 나남출판.
- 정원식(1989).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pp.147~166.
- 문은식(2006).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pp.1087~1108.
- 박소혜(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9).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사업학회지*, 2, pp.105~125.
- 배기명(1983).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운용·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권 제3호, pp.107~129.
-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3호, pp.161~180.
-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외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2호, pp.383~398.
-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pp.235~252.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2호, pp.199~210.
- 매일경제 2007. 9. 11일자 (사회) 기사 : 서울청소년 50% “화목한 가정이 행복조건”.
- 헤럴드경제 2005. 9. 13일자 (사회) 기사 : 학업포기 고교생 하루 76명.
-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179~189.
- Bir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5, pp.61~79.
- Bowen, G. L., Bowen, N. K., & Richman, J. M.(2000). School size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school environment. *Social Work in Education*, Vol. 22, pp.69~82.
- Bowen, G. L., Richman, J. M., Brewster, A., & Bowen, N. K.(1998). Sense of school coherence, perceptions of danger at school, and teacher support among youth at risk of school failur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 15, pp.273~286.
- Bowen, G. L. & Van Dorn, R. A.(2002). Community violent crime rates and school danger. *Children and Schools*, Vol. 24, pp.90~104.
- Bowen, N. K., Bowen, G. L., & Ware, W. B.(2002). Neighborhood social disorganization, families, and the educational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7, pp.468~490.
- Croninger, R. G., & Lee, V. E.(2001). Social capital and dropping out of high school: Benefits to at-risk students of teachers' support and guidance. *Teachers college Record*, Vol 103 No.4, pp.548~581.
- Eagly, A.(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nsminger, M. E., Lamkin, R. P., & Jacobson, N.(1996). School leaving: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cluding neighborhood effects, *Child Development*, Vol. 67, pp.2400~2416.
- Freiberg, H. J. (Ed.).(1999). *School climate: Measuring, improving and sustaining*

- healthy learning environments*, Philadelphia: Falmer Press.
- Hoy, W. K. & Sweetland, S. R.(2001). Designing better schools: The meaning and measure of enabling school structur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37, pp.296~321.
- Ladd, G. W.(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1 No. 4, pp.1081~1100.
- Murdock, T. B.(1999). The social context of risk: Status and motivational predictors of alienation in middle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1, pp. 62~75.
- Nash, J. K. (2002). Neighborhood effects on sense of coherence and educational behavior in students at risk of school failure. *Children and Schools*, Vol. 24, pp.73~89.
- Richman, J. M., Bowen, G. L., & Woolley, M. E.(2004). *School failure: An ecological- interactional-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 Rosenfeld, L. B., Richman, J. M., & Bowen, G. L.(2000). Social support networks and school outcomes: The centrality of the teache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Vol. 17, pp.205~226.
- Rumberger, R. W.(2004). Why students drop out of school. In Gary Orfield (Ed.), *Dropouts in America: Confronting the Graduation Rate Crisis* (pp.131~155).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 pp.226~249.
- Vartanian, T. P. & Gleason, P. M.(1999). Do neighborhood conditions affect high school dropout and college graduation rates?,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28 No. 1, pp.21~41.

- Wentzel, K. R.(1999). Social-motivational process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motivation at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1, pp.76~97.
- Williams, T. R., Davis, L. E., Cribbs, J. M., Saunders, J., & Williams, J. H.(2002), Friends, family, and neighborhood: Understanding Academic outcomes of African American Youth, *Urban Education*, Vol. 37 No.3, pp.408~431.
- Woolley, M. E., & Grogan-Kaylor, A.(2006).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Vol. 55, pp.94~104.

ABSTRACT

Impact of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Factors on Youth School Adjustment

Lee, Jeong-Eun* · Cho, Mi-H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actors related to family, school, neighborhood on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chool adjustment included problem behavior, sense of school coherence, academic achievement. The sample was selected utilizing Korean Youth Panel Survey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3,085 high school students.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ing,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factors displayed significant but differential pattern of impacts on the 3 school adjustment studied.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ith respect to practice and policy are addressed.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problem behavior, school coherence, academic achievement, family factor, school factor, neighborhood factor

투고일 : 6월 17일, 심사일 : 10월 4일, 심사완료일 : 10월 4일

* Researcher,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